

<http://dx.doi.org/10.17703/JCCT.2022.8.2.251>

JCCT 2022-3-32

외국인 유학생의 보고서 쓰기에 나타나는 인용의 수사학적 유형 양상

A study of the Patterns of Typology of Rhetorical of citations in International Students Papers

곽수진*

Kwak Soo Jin*

요약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부 유학생이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 주장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정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어떤 수사학적 유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한국어 능력이 상위인 그룹과 하위인 그룹의 수사학적 기능 선택 양상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유학생의 보고서 30편을 분석해 보았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자신의 논의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보완하기 위해 ‘통계’ 인용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귀속, 사례제시, 용어 사용 순이었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 상위에 속하는 그룹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보통 8-11회 정도의 인용을 사용하였으며 귀속, 사례제시, 용어 사용, 통계, 자료간의 관계 구축, 자신의 주장과 다른 자료를 비교하는 등 다양한 수사학적 유형을 사용한 반면, 하위에 속하는 그룹은 다양한 인용의 유형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인용”이 자신의 논리를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다양한 인용의 유형을 유용한 보고서 쓰기 전략으로서 교육해야 하며 교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자료통합적 글쓰기, 차용, 인용, 수사학적 기능 및 유형, 보고서 쓰기 전략

Abstract In this study, I analyzed what rhetorical citation type students most frequently used when reinforcing logic of their opinions and arguments in research papers, and compared these rhetorical types between higher and lower Korean proficiency levels of students. These 30 student papers included the following rhetorical citation types: statistics, attribution, exemplification, statement of use, establishing connections between sources, and comparing one's own findings or interpretations with other sources. Statistics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rhetorical citation type. In addition, the group with the highest level of Korean proficiency used citations about 8 to 11 times in their papers, and incorporated a variety of citation types including attribution, statistics, exemplification, and statement of use. Lower level students used significantly less citations and citation typ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aise awareness that “citations” is an important strategy to reinforce one's own logic, teach various types of citations as important research writing strategies, and prepare a more citation-focused academic writing curriculum.

Key words : Writing from Sources, Textual Borrowing, Citation, Typology of Rhetorical of Citations, Paper Writing Strategy

*정회원,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객원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1월 28일, 수정완료일: 2022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22년 3월 8일

Received: January 28, 2022 / Revised: March 1, 2022
Accepted: March 8, 2022

*Corresponding Author: ablejin@khu.ac.kr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Kyunghee University,
Korea

I. 서론

COVID-19로 인해 외국 유학생의 수는 주춤하고 있지만 각 대학별로 외국 유학생은 적지 않은 편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인원 감소 문제 또한 앞으로 외국 유학생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1-2]. 각 대학의 유학생의 비중은 높아져 가고 있지만 사실상 유학생들이 학부 수업을 수강하기에는 한국어 능력에 한계가 있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외국 유학생들의 수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강좌를 개설하고 있고 일부 대학에서는 학부에 입학하여 1년 동안은 한국어만 수강하게 하는 등 다양한 한국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부 수업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대비하게 하고 있다. 강의 듣기, 보고서 쓰기, 발표하기 능력은 유학생들이 대학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능력이며 특히, 쓰기 능력 중 보고서 쓰기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보고서 쓰기는 쓰기 능력 이전에 자료 검색, 수집, 선별 능력이 요구되는 활동으로 보고서를 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찾는 것도, 이를 적절하게 인용하는 것도, 인용을 한국식 표기에 맞게 기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로 이미 많은 유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에 서지 정보 제공 중심의 인용의 형식적 교육에서 벗어나 자료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자는 자료 기반 글쓰기·자료 통합적 글쓰기가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교육 방안이나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도 진행되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보고서 분석을 통해 유학생들이 인용 자료를 어디에서 주로 찾는지, 인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용표기는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관련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졌다[3-5]. 그러나 현재까지 외국인 유학생의 보고서에 나타난 인용의 수사학적 기능 양상과 관련하여 발표된 보고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살펴보고 교육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한국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선택하는 인용의 수사학적 기능은 무엇인가?

(2) 한국어 능력이 상위인 그룹과 하위인 그룹의 차이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자료 통합적 글쓰기

보고서 쓰기는 일반 목적의 쓰기와 달라 필자 자신의 주장만을 가지고 타당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독자를 설득하기 어려워 여러 종류의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6]. 이 과정에서 필자는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검색하고 선별한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요약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글에 활용하게 되며, 자료의 통합 양상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데 이러한 글쓰기를 자료 통합적 글쓰기로 정의하였다[7].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물론 국어교육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관점에 따라 자료를 재구성하고 통합하는 자료 통합적 글쓰기에 대한 교육적 필요가 폭넓게 논의되고 있으며, TOFEL, ITELS, 캐나다 학문 영어 평가인 CAEL 등 외국어 교육에서도 자료통합형 쓰기 역량을 평가하는 언어 평가가 시행되어 오고 있다[8].

2. 자료 차용 및 인용

자료 통합적 글쓰기 과정에서는 다양한 자료로부터 일부를 가져다 쓰는 텍스트 차용하기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이는 인용(citation)이나 환언(paraphrasing)으로 실현된다[9]. 따라서 합법적으로 자료를 차용하는 것은 쓰기 윤리 교육의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인용 방법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8]. 그러나 자료를 통합하여 자신의 글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환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인용의 출처 표기나 표기 방식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내 국어 교육은 물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도 교육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국에서 수학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보고서를 대상으로 자료 사용 비율이나 자료 유형의 빈도, 인용 방식, 인용 방식의 오류 등이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자료 차용과 인용 교육의 필요성이 심각함을 대변해 주었다. 분석 결과, 요약물 하거나 자신의 말로 환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으며 혹은 기계적으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료의 출처가 학술 자료가 아닌 인터넷 자료 등 특정 유형에 편중되는 경향이 높았고, 인용방식 오류에 있어서도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아예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글쓰기 윤리에 위반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3 ~ 5]. 인용이란 타인의 아이디어나 자료의 출처 정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면서 자료의 정보를 가져다 쓰는 것으로 여러 수사학적 기능에 의해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필자가 인용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바탕으로 귀속, 사례제시, 적용, 용어 사용, 자료 평가, 자료 간의 관계 구축, 다른 자료 간의 비교 등으로 유형을 분류하기도 하고 적용, 확증, 반대, 검토, 형식적 참조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10-12] 이러한 인용의 수사학적 기능 다시 말해, 인용의 다양한 유형 분류는 논리적 글쓰기의 전략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3].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학부 유학생이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선정된 자료를 인용하는데 (1)어떤 수사학적 유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2)한국어 능력이 상위인 그룹과 하위인 그룹의 수사학적 기능 선택 양상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A대학, K대학의 한국어 쓰기 수강한 학생 30명이 제출한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경영학과, 관광학과, 국어국문학과, 미디어 학과 등 다양한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베트남, 중국의 유학생들이다. 참여자의 정보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표 1. 연구 대상 정보
 Table 1. information of participant

대상		전공		국적		합계
1학년	14명	경영	20	베트남	21	30
2학년	9명	인문	9	중국	6	
3학년	3명	이공	0	인도네시아	3	
4학년	4명	예술	1			

2. 자료 수집과 분석

연구 문제를 고찰하기 위한 자료는 “한국어 쓰기”를 수강한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 결과물 30편이다. 한국어 쓰기 수업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글쓰기 기초”교재를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며[14], 15주 중 보고서 쓰기 수업은 5주간 이루어졌다. 1주차에는 대학 보고서의 특징과 보고서 개요 쓰기, 2주차에는 보고서 자료 인용하기,

3주차에는 보고서 서론 쓰기, 4주차에는 보고서 본문 쓰기, 5주차에는 보고서 결론 쓰기 순으로 진행되었다. 각 주차별로 보고서 서론, 본문, 결론에 들어가야 할 내용, 자주 쓰는 표현을 공부하고 교재에 나오는 연습문제를 사용하여 연습하였다. 특히 보고서 자료 인용하기 수업에서는 인용 시에 사용되는 표현, 참고문헌 정리 방법, 보고서의 개요에 맞게 적절한 자료를 찾아보는 연습 등이 이루어졌다. 보고서 쓰기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은 자신이 완성할 보고서의 주제를 선택하였으며, 보고서의 주제는 ① 효과적인 언어학습, ② 로봇의 미래와 발전, ③ 한국인의 여가시간 ④ 인터넷의 장점과 단점 중에 선택하게 하였다. 보고서 쓰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서론, 본문, 결론 각 단계별로 학생들은 자신이 완성한 부분을 제출하였고, 이 후 보고서의 내용이나 문법적인 오류 관련하여 피드백을 받았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한 후 한 편의 보고서를 완결하여 제출하였다.

표 2. 인용의 수사학적 유형 분류
 Table 2. Typology of rhetorical of citations

선행연구	Petric (2007)	Baumgartner & Pieters(2003)	Campbel (1996)	본고
인용의 수사학적 기능 유형	귀속	적용	권위	귀속 (적용·권위 포함)
	사례제시		사례	사례제시
	용어 사용			용어 사용
	적용	확증	유추	
	다른 자료 간 비교	반대		자료 간 비교 및 대조
	자료 평가	검토		자료 평가
	자료 간 관계 구축	형식적 참조		자료 간 관계 구축
			통계	통계

본 연구의 연구 문제인 유학생들의 보고서에 나타난 인용의 수사학적 유형은 7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Table 2에 나타내었다. 분류 기준은 ① Petric(2007)의 귀속관계(Attribution), 사례제시(Exemplification), 용어 사용(Statement of use), 적용(Application), 자신이 도출한 주장이나 해석에 대한 다른 자료 간의 비교(Comparison of one's own findings or interpretation with other

sources), 자료 평가(Evaluation), 자료 간의 관계 구축(Establishing links between sources), 총 7개의 세부적인 인용의 수사학적 유형 분류와 ② Baumgartner & Pieters(2003)의 적용(Application, 개념이나 이론, 연구 방법 등을 인용), 확증(Affirmation, 자신의 근거를 지지하는 자료를 가져다 인용), 반대(Negation, 자신의 결론이나 근거와 상반되는 자료를 제시하여 비교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인용), 검토(Review, 선행 연구의 검토를 위한 목적으로 인용), 형식적 참조(Perfunctory mention, 간접적으로 자료로 참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용), 총 5개의 세부적인 인용의 수사학적 유형 ③ Campbell의 사례(example), 권위(Authority), 통계(Statistics), 유추(Analogies)의 총 4개 인용의 수사학적 유형 분류를 바탕으로 결정하였다[10-12].

IV. 분석 결과

외국인 유학생의 보고서에 나타난 인용의 수사학적 유형은 Table 2에 있는 7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학생들의 보고서에 나타난 예는 아래와 같다.

1. 귀속(attribution)

보고서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논문이나 보고서, 뉴스 보도, 다큐멘터리, 권위자의 저서 등의 자료에서 단순한 요약이나 정보를 소개하는 인용이다. 이는 대체로 “-에 따르면”, “-라고 했다” 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난다.

학생 사례 1)

중국의 유명한 교량 엔지니어 교육가 나오이성은 “공부는 방법이 있어야 하고 계획이 있어야만 적은 노력으로 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2. 사례제시

필자의 주장과 비슷한 객관적인 사례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이 사실일 확률을 높인다.

학생 사례 2)

중국 현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손님맞이, 안내, 소독, 온도측정, 산업현장,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 여부 감시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로봇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사례 3)

예를 들어, 드라마 분야에서 여러분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 “대장금”을 기억하는가? 이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화려한 궁중음식을 본 시청자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식이 인기가 많아졌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음식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3. 용어 소개

개념을 소개하거나 사전적 정의를 소개하기 위한 인용이다. 이러한 인용은 대체로 “-란 -를 의미한다.” “-는 -라고 한다”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난다.

학생 사례 4)

위키백과에서 로봇이란 “인간과 유사한 모습과 기능을 가진 기계 또는 한 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할 수 있고 자동적으로 복잡한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적 장치”라고 말합니다.

4. 통계

자신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도표를 제공한다.

학생 사례 5)

문화체육관광부가 남녀 15세 이상 1만 6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여가활동 혼자서 한 경우는 2015년 59.8%로 2014년 56.8%보다 증가했다. 반면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한 비율은 2015년 29.7%로 2014년 32.1%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1인 가구 증가하기 때문이다.

5. 평가

다른 저자의 연구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학생사례 없음.

6. 자료간의 관계 구축

자료간의 비교 및 대조를 연결하여 주제와 관련된 다른 견해를 보여줄 수 있다.

학생 사례 6)

2019년 한국인의 하루 평균휴가 일수는 6.4일로 2018년 대비 1일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휴가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휴가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55.3%로 2018년 대비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자신의 주장에 대한 다른 자료간의 비교

자신의 연구나 주장, 다른 저자의 연구나 주장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보여주는 인용을 통해 자신의 연구나 주장이 중요하거나 타당함을 알린다.

학생 사례 7)

나는 이외에도 교육로봇, 전투로봇, 건설로봇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로봇이 등장할 것은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학자들은 이러한 로봇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편의성을 극대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표 3. 외국인 유학생의 보고서에 나타난 인용의 수사학적 유형
 Table 3. Typology of rhetorical of citations in international student reports

인용유형	사용횟수
귀속	29
사례제시	17
용어 사용	11
통계	50
평가	0
자료간의 관계 구축	2
자신의 주장과 다른 자료 비교	0

유학생들의 보고서에 나타난 인용의 수사학적 유형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용을 110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인용이 50회로 가장 많았고, 귀속이 29회, 사례제시가 17회, 용어 사용이 11회, 자료간의 관계 구축이 2회, 자신의 주장에 대한 다른 자료간의 비교가 1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은 자신의 주장과 자신이 선별한 다른 자료를 비교한다거나 다양한 자료의 관계를 구축하여 자신의 보고서에 내적 논리를 더하거나 구체적인 논거를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용의 유형은 통계로 나타나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계 자료를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상위그룹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보고서에서 8-11회 정도의 인용이 나타났으며, 다양한 인용 유형을 사용하고 있었다. 적절한 통계자료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보고서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었으며 신문이나 영향력 있는 자료를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논지를 입증해 가는 귀속 역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료를 평가한다든지, 자신의 주장과 다른 자료를 비교한다든지 하는 기능은 찾기 어려웠다. 보고서의 주제가 한국인의 여가생활이나 인터넷의 장단점, 한류가 미치는 영향인 탓에 통계 자료를 많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나 자신의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자료를 사용한 것은 훌륭한 전략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하위그룹 학생들의 보고서에는 0-3회 정도의 인용이 나타났으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인용하거나 인용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아 수업에서 인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용 출처표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하위그룹 학생들은 통계 자료 인용 또한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 인용 전략을 사용하지 않음도 알 수 있었다. 한국어 능력이 상위에 속하는 그룹과 (중)하위에 속하는 그룹이 그들의 보고서에서 사용한 인용의 수사학적 유형 횟수는 Table 4와 같다.

표 4. 상위, 하위그룹의 인용의 수사학적 유형
 Table 4. Typology of rhetorical of citations in high and low group

	상위그룹	(중)하위그룹
귀속	19	(6) 4
사례제시	12	(3) 2
용어 사용	7	(3) 1
통계	43	7
평가	0	0
자료간의 관계 구축	2	0
자신의 주장과 다른 자료 비교	1	0

위와 같은 분석 결과가 보고서 쓰기 교육에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 그룹 학습자에게도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용의 유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용 전략에 대한 인식 및 연습이 필요하다.

둘째, 하위 그룹 학습자에게는 인용의 출처에 대한

표기 방법과 중요성 및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 선별하는 능력은 물론 자신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용의 수사학적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과 연습을 통해 인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할 필요성이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부 유학생이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 주장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정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어떤 수사학적 유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한국어 능력이 상위인 그룹과 하위인 그룹의 수사학적 기능 선택 양상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는 첫째,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자신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보완하기 위해 ‘통계’ 인용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귀속, 사례제시, 용어 사용 순이었다.

둘째, 한국어 능력이 상위에 속하는 그룹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보통 8-11회 정도의 인용을 사용하였으며 귀속, 사례제시, 용어 사용, 통계, 자료간의 관계 구축, 자신의 주장과 다른 자료를 비교하는 등 다양한 수사학적 유형을 사용한 반면, 하위에 속하는 그룹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0-3회 정도의 인용을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인용의 유형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교육적 제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고서 쓰기가 미숙한 필자는 보고서를 쓸 때 내용과 관계없는 자료를 인용하기도 하며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기 위해 다양한 인용의 수사학적 기능과 유형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인용이 자신의 논리를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다양한 인용의 유형을 활용해야 함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수사학적 인용 유형을 항목별로 교육하고 연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인용 유형 중 하나인 ‘통계’ 자료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의 쓰기 53번 문제의 유형을 연습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용의 유형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다양한 유형에 따라 쓰기 연습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한 자료의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학부 유학생들의 보고서를 통해 인용 유형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석 결과는 보고서 쓰기의 교육 항목으로 가장 효과적인 인용의 수사학적 유형을 선별하여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가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향후, 학문 목적 보고서 쓰기의 중요한 전략으로서 인용의 수사학적 유형을 활용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 연구와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http://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5152&nttId=10041
- [2]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856>
- [3] Lee, Y. J.(2013), KAP writing Teaching plan for the Practice of Writing Ethics: Centered on Source Use, Jagmun-yeongu, Vol. 17, pp. 195-225.
- [4] Yu, M.A(2021), A Study on the Aspect of Source Text Use in the Reports of the Foreign StudentS,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18-3, 147-173.
- [5] Son, D. L.(2021), A Study on the Citation Education Method for Improving Ability to Source Use of Foreign Students, Journal of Ehwa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Vol. 53, pp. 267-294.
- [6] Jung.H.M (2008), College Writing, SAMIN.
- [7] Kang, M. G.(2013), A study of the contents for writing ethics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8] Choi, S. K.(2018), A Study on the Patterns of Source Text Borrowing Performance in the Integrated Writing of the Secondary Students: Focusing on Citations and Paraphrasing, Jagmun-yeongu, Vol.38, pp. 201-245
- [9] Campbell, “Writing with others’ words: Using background reading text in academic composition”,. In B. Kroll (Ed.), Second language writing, 211-230.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10] Campbell, The Phetorical Act, Belmont: Wadsworth 1996.

- [11] Baumgartner, H., & Pieters, R., “The structural influence of marketing journals: a citation analysis of the discipline and its subareas over time.” *Journal of Marketing* 67, 123-139, 2003.
- [12] Petrić, B., “Rhetorical functions of citations in high- and low-rated master’s thesis”,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6, 238-253, 2007.
- [13] Kong, S.S., (2016), *The Theory of The Citation as Rhetoric Strateg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2016 12, vol. 10, No.4, pp.605-645.
- [14] Yang, T.Y., (2019), *Basic Writing for Foreigner Students*, PARKIJUNG.